

일본 디스플레이 전시회 4월 16-18일 개최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과 기술, 그리고 완제품이 한데 어우러지는 일본 <FINETECH JAPAN>, <디스플레이 2008> 전시회가 4월 16-18일 Tokyo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평판 패널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장치, 부품, 재료, 기술과 함께 최신 디스플레이 제품 관련기업 700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FINETECH JAPAN 전시회는 2008년 18회째, 디스플레이 전시회는 4회째를 맞았으며, 2008년 동시에 개최된다.

일본을 중심으로 독일, 타이완기업 등이 함께 하는 전시회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한국디스플레이협회와 KOTRA 주관으로 한국공동관을 꾸려 참가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주요 디스플레이 대형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전시회 기간에는 Sharp, Sony 등 디스플레이 업계와 일본 정부당국 관계자 4인의 기조강연과 업계 전문가 100명의 강연 등도 마련된다.

특히, 세계 최대 크기의 Matsushita 150인치 PDP패널, 초박형(24.7mm 두께) PDP, A3 크기로 컬러 표시가 가능한 0.29mm 두께의 전자종이 등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들이 다수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4/15>